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니 내 주인공에다 맡겨 놓아라

☞ 19면에서 계속

다 내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공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독불장군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애를 낳아도, 아내 자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남편 자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넓게 보면 모든 문제들이 네 자식 내 자식이 따로 없고,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고, 네 형제 내 형제가 따로 없다는 그런 이치로 돌아가죠. 그럼으로써 '하지 않았다'도 아니고 '했다'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했다 안 했다 이것이 없습니다. 네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그게 없습니다. 네가 했다 내가 했다 그게 없습니다.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일해서 돌아갈 때, 바로 두 전자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진다 하는 거는 하나로 몰입하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력만, 즉 에너지광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니 하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참 유전성으로 오는 사람, 영계성으로 오는 사람, 세균성으로 오는 사람, 업보성으로 오는 사람, 윤회성으로 오는 사람 등 갖가지로 많습니다. 이런 거를 병원에서 100%를 다 해결한다고는 못 봅니다. 과거로부터 온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신계의 발전을 아니 한다면 그걸 대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65%든 60%든 대처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는 내 몸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며 내 가정도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넓게 생각하세요. 좁게 개별적인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포괄적인 하나로 생각을 하세요. 한 가정이라면 한 방통안이라고 봅니다.

내가 항상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방편으로. 전구는 많지만 전력은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이 내 뒤를 따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싸우고 "왜 나는 나가는데 안 나가느냐?" 하고 온통 야단들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니까 내 주인공에다가 '한마음 주인공!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우리 식구를 다 이끌어 줄 수 있고, 내 몸을 이끌어 줄 수 있다. 성사가 되는 것도 거기요 성사가 안 되는 것도 거기니, 성사가 되게 하는 것이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맡기고 놓았을 때 가정이 점점 마음이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전등은 다 각각이지만 전력이 같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밝아질 것을 나가서 안 들어오느니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느니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아등바등하면서 온통 애를 태우니 병은 병대로 나고, 가정은 가정대로 파괴가 되고, 화목지 못하고, 부드러운 말 나오지 못하고, 부드러운 행 나오지 못하고 이거는 모두가 악화가 되는 거죠. 너그럽게 생각을 하십시오, 너그럽게.

우리는 배낭을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과거는 없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벌써 현실로 수억 개나 되는 악업 선업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어딨습니까? 미래는 또 아직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요. 그럼 그 배낭 속에, 이 몸을 배낭이라고 해도 됩니다. 배낭 속에 그렇게 수억겁을 거치면서 진화되면서 쫓고 쫓기면서, 인과를 짓고 업을 지은 이 악업 선업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있기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에 부작용이 나고 모든 게 일어나는 것이니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상대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모두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 맡겨 놓으신다면, 바로 앞서의 것은 무너져 없어지고 현실에 좋게 생각해서 새로 맡기는 것만이 풀려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숙명통이라고 하죠. 비교한다면 지금 컴퓨터와 같은 거죠. 과거를 짊어지고 나오는 것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나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인데.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있으니까 상대가 있죠. 여러분이 없으면 상대가 있을 리가 있나요? 무효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고 모든 게 일어나는 거니까,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상대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 액난이 다 나오는 거니까 액난을 다 없앨 수 있는 것도 그 자리밖에 없다.' 하고 놓는 것이지 '나를 잘되게 해 주시오.' 하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믿고 그냥 직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 한마음 주인공! 나를 이렇게 해 주시오.' 이게 아닙니다. '해 주시오'가 어딨습니까, 둘이 아닌데. 유심과 무심이 어떻게 둘이 됩니까?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둘이 됩니까?

그러니까 '해 주시오'가 아니라 '틀림없이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놓는 겁니다. 이심전심으로써 수없이 통하고 돌아가는데 내 마음이 저쪽 마음으로 가서 해결을 하는 것도,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바로 보살로 화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없이는 내 속에 있는 이 업보성을 전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부 보살로 만들 수 없습니다. 보살로 만들지 못하면 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무심의 중용, 보이는 데나 보이지 않는 데나 100%를 작용하면서 굴리는 것이 중용이에요.

칠층탑에 대해

질문 한마음선원은 다른 절과 달리 대웅전 지붕에 둥근 탑이 올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 본원에는 칠층으로 탑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뜻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예. 칠탑이든 구탑이든 말입니다, 칠탑도 여러분들의 몸과 같은 겁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을 깔죠? 허허허. 육속에 진짜 주장자가,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세우고, 그래서 칠성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 칠탑이라고 그러는 것도 여기다 대도 맞고 저기다 대도 맞습니다만, 칠탑도 없고 칠탑이 한 탑이요, 한 탑이 칠탑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닌데 이것을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에 이 모든 것을 맞게, 전부 살아나가는 그 모두를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지, 이 마음의 도리로서는 칠탑도 없고 한 탑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탑이 많아서 '칠탑이 있다, 한 탑이 있다' 이러지 않습니다. '삼탑이 있다'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둥근 탑을 갖다가 이게 칠탑으로 올린 것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요만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성취하라고 방편으로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방편 아닌 방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시에 같이, 모두 응신으로서 거기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응신이 되고 보현신이 되고 법신이 되고 부처님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그 탑도요, 칠탑도 따로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내면 칠탑이 있고, 또 둘 아닌 마음으로써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부 그것이, 보현신도 거기 계실 거고, 부처님도 계실 거고, 또 법신도 거기 계실 거고 다 그냥 이 허공에 다 계신 분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거기 다 운집해서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그저 거기에, 때에 따라선 거기에 계시고, 때에 따라선 여기에 계시고, 때에 따라선 부처님한테 계시고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스승의 날이랬나? 그날 신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법당으로 몰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울 땐 형상이라고 배웁니다. 나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형상이라고 배우지만 나중엔 말 없는 그 무심으로써, 연기법으로, 그냥 공법으로 하시는 부처님이 돼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도 이 형상하고 똑같고요. 여러분들의 몸도 형상 아닙니까? 저 모습도 똑같고 마음도 똑같고, 생명도 똑같으니 너무 높이 보지도 말고 너무 얕이 보지도 말고 그냥 항상 둥글게 삼배를 극진히 올리고, 자기 주인공을 다 거기다 몰아넣고 삼배를 올린다면, 자기가 그냥 색경을 보고 자기한테 절할 수도 없는 거니까 여기다가 다 이렇게 한데 주인공과 더불어 같이, 부처님의 주인공과 같이 해 놓으시고 삼배를 올리시면 그 스승의 날 아주 멋지게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깐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말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뜻으로 알려고 하세요.

이 마음,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쓰는 마음은 지혜롭고 그거를 정신계와 물질계를 같이 쓰지 못하고, 즉 말하자면 물질계에서만 쓰게 되면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쓰는 사람들은 공덕이 있지만 그냥 육안으로 쓰는 사람은 공덕이 하나도 없다. 이 물질만 보고, 내 물질이 물질만 보고 기도를 하거나 그런다면 그건 상대를 보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덕이 될 수가 없죠.

모두가 한마음으로서, 한 개체로서 이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도 이것이 공체입니다. 공체인데 항상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몸뚱이 하나다.' 이렇게요. '내 몸뚱이 하나고 나뿐이다. 외롭다.' 그러지요. 그런데 외롭지 않아요. 이 몸뚱이 하나 속에도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공체죠. 그리고 또 공체로서 움죽거린다면 공용이지 어떻게 자기가 개별적으로 하나가 움죽거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움죽거리기 때문에 공용이죠. 그리고 공식이고. 그래서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는 공심으로서 쓰는 것이 지혜고. 공심이 아닌 개별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대로 그냥 마구 말하는 걸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몸뚱이도 공체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같이 사는 거구나. 더불어 같이 움죽거리는 거구나. 더불어 같이 보는 거로구나. 더불어 같이 먹는 거로구나. 더불어 같이 생각하고 사는 거로구나. 그러니 나라고 세울 게 뭐 있겠나. 내가 혼자 했다고 할 게 뭐 있겠나. 내가 혼자 봤다고 할 게 뭐 있겠나. 혼자 들었다고 할 게 뭐 있나. 내가 산다고 할 것도 없다. 나를 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이 모두 공해서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붕에 칠탑을 해 놓은 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몸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공체인 몸, 공심인 마음, 공생인 생명, 공식으로서 모두가 같이, 더불어 같이 하고 있는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같이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징하는 겁니다.



한국 관음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관음신앙 경전 연구

불자들이 가장 널리 신앙하고 있는 관음신앙이 고려와 조선시대에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전개되어 갔는지를 경전 성립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 입체적으로 고찰하였다.

김방울 저/신국판/양장/320쪽/값 23,000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감동을 보살의 마음으로 승화시키다!
괜찮아 괜찮아
That's Okay, That's Okay

동훈과 지안을 둘러싼 후계동 사람들의 가슴 훈훈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삶, 바로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인 보살의 길이다.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지금의 현실이야말로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고 병을 앓는 '유마거사'와 같은 보살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장범용 저/국판변형/228쪽/값 14,800원



이것이 천태불교의 핵심이다!
천태불교의 이해와 실천

인도불교를 중국불교로 최초로 정착시키고 토착화시킨 천태불교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전반을 서구 철학자의 안목으로 알기 쉽게 조명한 역작이다!

브룩 지포린 지음/정천구 옮김/520쪽/값 3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